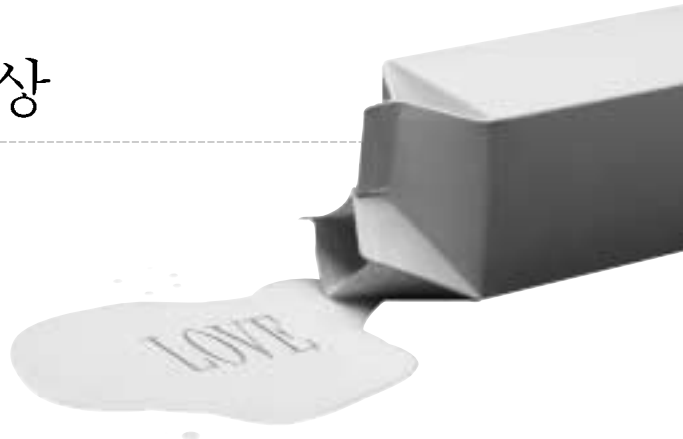


글 \_ 강경희(한국여성재단 사무총장)

# 사회공헌과 양극화현상



## IMF

시절 장롱 깊이 간직하던 금불이까지 동원하며 장하게 어려운 난국을 이겨내 세계인들을 감동시켰던 한국은 이제 세계경제대국 10위라 한다. 한국의 경제력은 전 세계 GDP 규모 10위이고 상품 교역규모 11위에 진입했으나,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질은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26위 수준이며, 우리 경제의 위치는 양적으로는 11위이지만 질적으로는 19위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 빈익빈 부익부로 명든 사회

경제대국 10위를 논하는 때에, 얼마 전 대구 불로동에 사는 30대 영세민 부부의 다섯 살 난 아이가 장롱 안에서 먹지 못하여 숨진 채로 발견된 사건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현상의 한 단면을 아프게 보여준다. 특히 숨진 아이는 장애아였고 아이의 어머니는 정신신체 장애인이었다. 아이의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으로 연명하며 하루 세끼를 챙기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조차 선정되지 못하여 정부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무관심한 태도를 깊이 반성하게 해주었다. 아이의 어머니는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지 않았고, 아이가 숨지기 전 장애전문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발달장애등록에 관하여 관할 동사무소에 문의했었으나 서류에 대한 설명만 들었을 뿐, 그 이상의 도움을 어느 곳에서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 사건을 다룬 언론마다 이웃의 조그만 관심만 있었더라도 한 생명을 그렇게 무참히 보내지 않을 수 있었다는 의견을 달았다. 이웃이나 공무원들의 조그만 관심을 나눌 수 있었다면 한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가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안타까운 심정의 표현일 것이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사정의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명품을 판매하는 백화점의 매출은 늘고 있으나, 재래시장의 매출은 형편없다는 것

을 함께 얘기한다. 경제를, 정치를, 교육을 논하면서도 양극화에 대한 많은 논의를 하면서, '부익부 빈익빈'은 단골처럼 함께 등장하는 논란거리이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 모든 부문에서 발견된다.

## 나눔의 현장에까지 파고든 양극화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우리 사회를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나눔의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조차도 이 현상은 어김없이 발견된다. 정부가 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지원이 필요한 지원 사각지대에 대한 민간의 개입은 여러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는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민과 관의 건강한 협력을 통한 사회발전의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분야로 쏟아붓듯 몰리는 민간재원의 흐름은 결국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마저도 양극화현상을 만들고 있는 셈이 된다. 언론 또한 이 흐름에 편승하여 대기업의 수십억 대 기부와 몇몇 특정 민간단체의 홍보에 대대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이는 분명 널리 알리고 우리 사회가 함께 칭찬할 일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현재 큰 기업들이 사회공헌 주제로 선택한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들 이외에도 이웃의 아주 작은 관심이 필요한, 그 작은 관심을 받지 못하여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나눔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너무도 많다. 또 이들을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민간단체들 또한 많이 있다.

민간자원을 모금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이들에게 재분배하는 일을 하고 있는 현장의 실무자들 모두에게 기업이 선호하는 지원대상 Top 5를 묻는다면 이구동성으로 답할 수 있을 것이다.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에는 Top 5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어쩌면 오히려 더 아픈 고통 중에 놓인, 작은 관심을 목말라하는 이웃이 있기에 우리의 관심만 큼은 양극화현상에 빠져드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